

미디어·콘텐츠 사업 키우는 이통사... OTT 시장서 진검승부

SKT 웨이브 중심 시장 공략 강화
KT 그룹 조직개편... 티빙-시즌 통합
LGU+ 결합 요금제 등 서비스 확장

이동통신사들이 OTT(온라인동영상)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SKT는 SK스퀘어가 지분 36%를 보유한 웨이브를 중심으로 OTT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KT는 케이티시즌을 티빙으로 합병하고, KT 스튜디오지니를 중심으로 '위드KT' 생태계를 창출해 디지코 KT의 성장 엔진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직접적으로 OTT 서비스에 나서고 있지는 않지만 대표 글로벌 OTT 기업들과 손을 잡고 결합요금제를 출시, OTT 사업자들이 리모컨으로 편리하게 OTT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으며, 어린이 콘텐츠 조직인 'U+아이들나라'를 분사해 OTT 플랫폼 회사를 출범시키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SKT는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와 지상파3사의 '뚝'이 합병하면서 탄생한 OTT인 웨이브를 중심으로 OTT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SKT에서 모바일스트리밍 담당 겸드림어스컴퍼니 전략그룹장을 담당하던 최소정 그룹장을 웨이브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임명하면서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웨이브를 서비스하는 콘텐츠웨이브



웨이브의 오리지널 콘텐츠.



/웨이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ENA LG유플러스가 선보인 디즈니플러스 결합요금제. /LG유플러스

는 오는 2025년까지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하반기 오리지널 라인업을 대거 강화하며 콘텐츠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해외방송사의 인기 시리즈도 지난해에 이어 독점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HBO와 대규모 콘텐츠 월정액 독점 계약을 체결, HBO·HBO맥스의 오리지널 신작 시리즈들을 독점 공개할 계획이다.

KT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산업 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즌과 티빙의 통합을 결정하고, 오는 12월 1일까지 합병을 진행한다. 케이티시즌의 100% 지분을 보유한 KT스튜디오지니가 합병법인의 지분을 취득해 3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KT는 또 3월 국내 최고 수준 빅데이터 분석 역량으로 흥행 가능성이 높은 콘텐츠에 핀포인트로 투자하고, K-콘텐츠의 새로운 유니콘인 'KT 스튜디오지니'를 중심으로 국내 제작사들과

상생하는 위드 KT 생태계를 창출한다. KT그룹은 1300만 가입자 기반의 유료방송 서비스에 실시간 채널, OTT, 음원 서비스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역량과 원천 IP(지식재산) 전문 자회사까지 견고한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의 종합 미디어 그룹이다.

신설된 콘텐츠 전문 투자·제작·유통법인인 KT 스튜디오지니는 스토리위즈가 보유한 원천 IP 자산을 활용해 드라마, 영화, 예능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게 되며, 스카ით이비(sk yTV) 실시간 채널을 비롯해 올레 tv, 스카이라이프 등 KT그룹 플랫폼에서 1, 2차 판권을 유통하고 있다. 이후 KT H, Seezn(시즌) 등을 통해 국내외 후속 판권 유통이 가능하며, 지니뮤직 등을 통한 콘텐츠 부가가치 창출도 이뤄질 수 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 스튜디오지

니로 2023년 말까지 원천 IP 1000여 개 이상, 드라마 IP 100개 이상의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구축한다. 외부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며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의 영입과 육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KT는 OTT 외에도 종합방송채널사업자(MPP) 사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KT그룹 내 SkylifeTV는 1일 이사회를 열고 미디어지니와의 합병안을 결의했다. 이번 합병 결정에 따라 SkylifeTV는 ENA채널을 중심으로 콘텐츠 제작과 편성을 일원화해 경영 효율성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단일 채널법인으로 전략적인 시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재는 OTT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IPTV 영유아 서비스인 'U+아이들나라'를 분사해 OTT 사업에 진출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회사측은 아이들나라는 모바일이나 IPTV에서도 볼 수 있고 광의

의 의미로 보면 OTT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넷플릭스와 손잡고 4개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디즈니플러스와도 손잡고 결합 요금제를 선보였다. 월 2만 4600원에 IPTV 서비스와 디즈니플러스 콘텐츠를 제공하는 결합 요금제와 모바일 요금제와 결합한 '디즈니플러스 프리미엄팩'도 선보였다. 특히, 유플러스tv 고객이 IPTV에서 디즈니플러스를 이용하기 쉽도록 전용 리모컨을 제공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넷플릭스 및 디즈니플러스와 손잡고 새 요금제를 선보였는데 이는 IPTV와 버튼 한 번으로 연결이 가능한 결합"이라며 "리모콘에 있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버튼을 통해 OTT 서비스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버튼 한번에 OTT 서비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SKT-SKB, 국제망 구간 'PQC' 상용화

(양자내성암호)

지난 8월 네트워크 테스트 완료
美 NIST 알고리즘 후보 2종 채택

SKT와 SKB가 국제망 구간에서 양자내성암호(PQC) 국내 첫 상용화에 나섰다 이번 PQC 상용화를 통해 QKD(양자암호키분배기)와 QRNG(양자난수생성기)에 이어 PQC(양자내성암호)로 양자암호 기술 영역 확대에 나선다.

SK텔레콤은 국제망을 이용하는 글로벌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네트워크에서 PQC를 상용화했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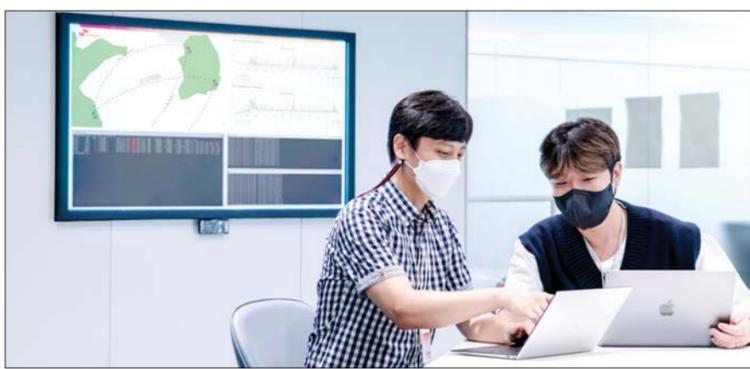
AI서비스컴퍼니인 SKT는 이번 PQC 상용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QKD는 물리적인 키분배장치를 구간마다 설치·운영하는 반면, PQC는 S/W 방식으로 구현돼 보안 영역과 편리성 등에서 상호 보완적인 기술로 평가된다.

또 SKT는 이번에 물리적 제약으로 QKD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국제망 구간에서 PQC를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SKB는 지난 8월 S/W 업데이트를 통해 PQC-VPN 설치를 완료하고, 미국·일본·싱가폴 등 해외에서 네트워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PQC-VPN'은 VPN 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PQC 공개키 암호화/키분배, 전자서명 알고리즘을 적용



SKT 연구원들이 국제망에 PQC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SKT

했다. 특히 'PQC-VPN'은 국내에서 처음 NIST(미국표준기술연구소)가 선정한 PQC 알고리즘 최종 후보인 '크리스털 카이버'와 '크리스털 딜리슘'을 채택했다.

'크리스털 카이버'와 '크리스털 딜리슘' 두 알고리즘은 향후 PQC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확장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또한, 'PQC-VPN'은 인증 및 키분배 시에 기존 공개키 기반 알고리즘을 PQC알고리즘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SKT는 2021년 12월 10Gbps·100Gbps급 암호모듈에 대한 KCMVP(국정원암호검증모듈)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한데 이어 '양자통신 암호화장비 하이브리드 키조합'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양자통신 암호화장비 하이브리드 키조합' 기술은 기존의 공개키 기반 암호키와 양자키분배방식에서 분배된 양자키를 조합해 기존 암호화 장비의 비밀키로 사용하는 기술로, 양자암호 확산을 위한 핵심 기술영역이다. 이 기술은 2020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양자암호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국정원에서 마련한 보안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됐다.

또 SKT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와 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협력해 보안 및 안전성 시험을 사전 검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3년 정부 및 공공시장에서 보안기능 시험제도에 맞춘 제품을 출시해 양자암호통신 시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LGU+, AI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 실증

품질이슈 사전 예측... 문제 자동 조치

LG유플러스가 AI(인공지능)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기술에 대한 실증을 완료했다.

LG유플러스는 AI 기반 네트워크 자동화 3GPP 표준기술 장비인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을 통해 장애인지-자동조치 기술을 실증했다고 13일 밝혔다.

NWDAF는 네트워크 슬라이스 품질 보장 기술에 이용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품질 조건에 따른 다수의 논리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술을 말한다.

카카오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 개편

카카오가 중소 비즈니스 파트너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다.

카카오는 13일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 프로그램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를 개편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카카오비즈니스 세미나는 카카오비즈보드나 카카오톡 채널 등 카카오의 광고 및 비즈니스 플랫폼을 소개하고,

LG유플러스는 NWDAF 표준 기술을 활용해 네트워크 슬라이스 별 품질 이슈를 사전에 예측하고 발생가능한 문제의 근본원인을 자동으로 조치하는 'AI 기반 장애 인지 및 자동 조치' 기능을 실증했다. 이 기능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저하를 체감하기 전에 장애를 예측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통신사는 NWDAF 장비를 품질 보장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AI 기반 소프트웨어 중심의 운영 방식을 통해 특정 장비 공급사의 하드웨어 중심의 수동적인 운영 방식을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채윤정 기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 등을 전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누적 신청자는 총 7만 2000여 명이 달하며, 이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자로 비즈니스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 개편으로 ▲VOD 세미나 신설 ▲PDF 형태의 플레이북 제공 ▲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선보이며 파트너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채윤정 기자